

KCL, 화학연구원과 MOU 체결

화학 및 건설생활환경분야 기술개발 협력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이 지난 1월 18일 한국화학연구원과 MOU를 체결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KCL 송재빈 원장과 화학원 김재현 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화학 및 건설생활환경분야 기술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MOU 체결을 통해 KCL과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및 건설생활환경과 관련된 공동 연구, 시험분석 협력, 기술인력 상호교류, 시험·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KCL 송재빈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시험분석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 1월 18일(수) 11:00~12:00 장소 : 중회의실



▲ KCL과 화학원은 '화학 및 건설생활 환경분야 기술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KCL, 英로이드선급 시험기관 지정

지난 1월부터 효력 ... 국내 조선사 불편 해소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이 국내 최초로 영국 로이드선급으로부터 선체보호도장분야 시험기관 지정을 획득했다.

이로 인해 1월부터 KCL의 시험성적서는 로이드선급에서 설계, 제작을 주관하는 모든 선박의 선체보호도장(PSPC) 분야에 대해 로이드선급이 직접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됐다.

선체보호도장은 선박의 해수전용 평형수 탱크와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적공간 내부에 보호도장을 의무화한 것으로, 선체의 강도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가 규정한 의무사항이다. KCL 관계자는 "국내 중소조선사와 선박도료 회사들은 그동안 도료의 성능평가를 위해 선주사가 요구하는 해외 선급기관을 이용해 왔다"며 "이번 KCL의 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업계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KCL의 시험성적서는 선박의 선체보호도장(PSPC) 분야에 대해 로이드선급이 직접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됐다



KCL, 생산기술연구과 MOU 체결

생산기술 혁신·시험인증 책임지는 양기관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이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생산기술 및 건설생활환경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KCL의 송재빈 원장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경환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공동연구 및 상호정보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MOU를 통해 KCL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인력 상호교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시험·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합의했다.

송재빈 KCL 원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시험인증을 책임지는 KCL의 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 MOU를 통해 기술인력 상호교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시험·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에 합의했다

KTR, 무료 기술컨설팅 '기술 흠닥터' 실시

전국 중소기업 직접 찾아 컨설팅 ... 연중 수시 개최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지난해 12월 22일 전국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무료 기술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술 흠닥터'를 실시했다.

KTR 직원들은 기술 흠닥터를 통해 품질개선 및 고장원인분석 등에 대한 무료상담 및 컨설팅과 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주요인종 또는 규제 관련 상담 및 대응방안 소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TR의 기술흠닥터는 각 사업 분야의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국에서 신청한 30개 업체 및 기관을 방문하여 기술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험·인증 및 해외진출 방법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천의 한 부품생산 업체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진출을 위해 러시아 강제인증인 GOST-R과 우크라이나 수출 인증 관련 자문을 요청했다. 울산의 한 업체는 기술개발 아이템과 제품 품질확인을 위한 성능시험에 대한 컨설팅을 신청했다. 또한 인천의 한 전자업체는 KTR 기술흠닥터와 전자파 노이즈 해결책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 아스팔트 제조업체를 찾아 컨설팅을 실시하는 KTR 기술흠닥터

KTR은 연중 수시로 기술흠닥터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기성 KTR 원장은 "KTR의 기술흠닥터는 기술개발과 품질개선,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해결방안을 함께 찾기 위한 행사"라며 "KTR 직원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기부하는 재능기부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KTR, 한국제품안전학회 학술 발표

해외 주요국의 리스크 평가모델 소개 발표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 2011 한국제품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리스크 평가모델의 해외 동향을 발표했다. 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제품안전&지속가능 경영'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16일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참석한 KTR 기술컨설팅팀 한신호 대리는 '해외 주요국의 리스크 평가모델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제품 사용에 따른 사고 발생과 기업의 사후 대응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일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정부에서는 리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KTR은 기술표준원과 함께 전기제품의 위해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리스크 평가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는 EU의 RAG(RAPEX Risk Analysis Guideline), 일본의 Risk-map 등 고유한 리스크 평가모델을 개발해 평가 시 활용



▲ 이번 학술대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참석한 KTR 기술컨설팅팀 한신호 대리는 '해외 주요국의 리스크 평가모델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일반소비자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 시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로 KTR은 제품안전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업무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KTC, 올해 업무 경쟁력 강화한다

심 원장 시무식에서 업무 효율 증대 중요성 강조

KTC 심윤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원장은 시무식에서 상호간 공감대 형성과 업무효율성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2일 열린 KTC 시무식에서 심윤수 원장은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하자"며 올해 해야 할 업무를 각인시켰다. 심 원장은 환경개선을 통해 연구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과 업무 활성화, 고객서비스강화, 직원 간 소통 해소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갖자고 강조했다. 또 심 원장은 "향후 연구원 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정업무를 5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자체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 심윤수 KTC 원장이 시무식에서 상호간 공감대 형성과 업무효율성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